

어린이 포교 전담 부서 생기나?

지관 스님 의지 피력...예산 수립 의무화도



“올해 예산 작업을 거쳐 중앙총회의 동의를 구해 내년 1월 조직개편때 포교원 안에 어린이포교 전담 부서를 설치할 생각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사진)이 6월 28일 불교언론문화상 대표를 맡은 수발 스님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는 자리에서 어린이포교의 중요성을 설명하며, 이례적으로 어린이포교부(가칭) 설치에 대한 스님의 확고한 의지를 밝혀 관심을 끌었다.

그동안 말로 그쳤던 어린이 포교 활성화 위해 종단 차원에서 적극 나설 계획이라는 것이다. 어린이 포교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불교계 종진스님들 발언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지만, 이날 지관 스님의 발언은 자리를 같이한 이들에게 단호함을 넘어 비장감마저 들었다.

지관 스님은 “미래의 포교는 어린이를 통한 씨앗포교부터 나서야 한다”며 “어린이포교를 바탕으로 종교생, 청소년, 군인포교에 나서야 불교의 미래가 열린다”고 재차 강조했다.

“중회 동의 구해 내년부터...”

청소년 불자 감소 추세속

밝은 미래 위한 ‘중대한 결정’

통계청이 지난 6월 1일 발표한 2005년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 분석을 보면, 지난 10년간 10대 종교인구의 비율이 1.6% 증가했는데 비해 10대 불자는 무려 16.5%나 감소했다. 참담한 현실인데도 불교계는 속수무책이었다. 불자 어린이 청소년의 감소는 ‘불교의 밝은 미래’를 담보할 수 없는 위기상황이라는 절박한 인식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지관 스님은 종단차원의 제도적 대안 마련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앞으로 주지 임명시 무조건 어린이포교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강제하고 사찰의 일년 예산 가운데 의무적으로 2% 이상을 어린이포교에 쏟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어린이 포교에 적극 나서지 않는 주지는 재임에도 불이익을 받도록 할 방침”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관 스님의 말처럼 전담부서가 생길 경우, 어린이포교부는 어린이 포교관련 각종 교재와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전국 사찰의 어린이 포교를 조직화 하는 역할을 할 전망이다.

총무원장스님의 이런 의지표명을 전해들은 (사)동원 총재 혜종 스님은 “그동안 어린이 포교에 대한 종단의 인식과 지원이 매년 줄어들고 있어 안타까웠다”며 “종단 예산 확대를 통해 어린이포교 부서 설치 뿐 아니라 우수한 비구니 스님들을 어린이 포교에 전진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조계종의 어린이부 신설 추진은 2003년 비구니 문화부장 임명 이후 이웃종교인들의 부러움과 일반인들의 주목 대상이 됐던 기억을 떠올리게 한다. 조계종이 그동안 취약했던 어린이 포교를 위해 얼마나 과감한 투자가 나설지 아직은 두고 볼 일이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조계종의 수장인 지관 스님의, 어린이 포교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하루빨리 현실화되기를 불자들이 대환영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다.

조용수 기자 pressphoto@buddhapia.com



1994년 백양사에서 도난당했던 ‘아미타 극락화상도’(왼쪽사자의 후불탱화·백양사 제공)가 최근 한국불교미술박물관에 전시(오른쪽·사진=고영배 기자)돼 있어 도난문화재를 반환해 달라는 백양사측과 ‘신의 취득’이기 때문에 돌려줄 수 없다는 박물관측의 주장이 팽팽선을 두고 있다.



종법 손질해 포교역량 강화

포교원 ‘지방종정법’ 등 개정 추진...각종 인사에 ‘실적’ 반영

조계종 포교원이 교구본사 부주지가 포교국장을 겸임하도록 하는 등 포교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종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7월 4일 열린 교구본사 포교국장 회의에서 논의된 종법령안은 ‘지방종정법’ ‘승려법’ ‘교육법’ ‘승가고시법’ ‘본말사주지인사규정’ 등. 이 가운데 ‘지방종정법’ 개정안 주요 뼈대는 △종무원의 심의사항 중 신도관련 사항 추가(제13조) △교구본사 부주지 포교국장 겸임(제14조) △교구본사 포교사업 구체화(제16조) △말사 과의 구체적 명기(제19조) 등.

특히 제16조에는 교구본사 관할 지역 신도 및 포교단체 현황 관리와

지원, 분사 및 말사스님들로 구성된 상임지도법사단 구성 후 지역 내 군법당 신도단체 법회 지도법사 활동, 포교예산 편성 및 집행 등을 ‘의무화’ 하고 있다.

‘승려법’ 개정에서는 신도관리에 공로가 지대한 자에 대해 ‘포상’하도록 하는 ‘명군’ 과, 사찰주지로서 사찰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지 않는 자와 신도 입교, 교육, 등록, 조직 등의 절차를 이행하는 자에 대해 ‘징계’하도록 하는 ‘체적’을 고투 사용하는 것에 주목할 만 하다.

‘교육법’ 개정에는 승가의무교육과 정인 기법교육과정(강원)에 신도 및 포교 문제를 제도적으로 접근하는 교육과정이 없기 때문에, 제66조(교육 목표)에 ‘포교방법 및 신도 육성

과 조직에 관한 교육’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승가고시법’ 개정에는 △종무원에서 임명한 종무직, 상근직 소임자 △종단이나 종립학교에서 설립하거나 지정한 법인격 단체의 임명직 소임자 △종단에서 설립·지정하거나 운영하는 시설·기관(어린이집, 유치원, 복지관, 수련관, 신도교육기관 등)에서 상근하는 소임자 △각급 신도단체를 지도하는 소임자 중 승남 10년 이상인 자로서 2년 이상 근무한 자에게 ‘상임포교사’라는 자격을 부여해 3급 승가고시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해외포교 활성화를 위해 종단 소속 해외사찰에서 포교활동을 하는 소임자에게도 해당된다.

‘한국-티베트 풀뿌리 운동’ 세계침술봉사협회 계승

7월 12일 본사서 설명회

티베트 스님과 사찰을 후원하고 양국의 문화교류를 위해 본사가 지난해 7월부터 벌여 온 ‘한국-티베

트 풀뿌리 운동’을 ‘세계침술봉사협회(World Acupuncture Service Association, 이하 ‘와사’·회장 이홍재)가 이어받아 펼치게 된다. ‘와사’는 풀뿌리 운동과 관련한

제안 계획을 수립하고, 7월 12일 오후 2시 본사 법당에서 회원과 불자들이 대상으로 설명회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신문사보다는 다수 회원을 확보하고 있는 불교단체가 운동을 벌여나가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한 ‘현대불교’는 국내 전국 각지는 물론 인도 네팔 등에서 침술봉사활동을 벌이고 있는 ‘와사’가 참여 의사를 밝혀움에 따라 ‘풀뿌리 운동’을 인계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16면 한명우 기자



큰스님 편안하십니까 24~25면
월주 스님 금산사 회주



시방세계 9면
예천 불교·천주교인 큰잔치



도반의 향기 17면
과천 마애 승상 지킴이들

‘일연’ 생애연구 미진 4면
등록문화재 외면현주소 13면

軍 휴게실·화장실에도 ‘풍경소리’ 울린다

군종교구·풍경소리 이달부터 군부대에 ‘포교계시판’

지하철 역사에 붙어 있는 포스터 형식의 포교 계시판이 군종병들의 막사에서도 볼 수 있게 돼 군포교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 부설 ‘법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모임 풍경소리(회장 해자·이하 풍경소리)’는 조계종 군종특별교구(주지 일면)와 공동으로 7월부터 지하철 역사에 붙어 있는 포교 계시판을 장병들이 병영 생활하는 휴게실과 화장실 등에 부착해 부처님 말씀을 전한다.

이를 위해 풍경소리는 포스터 형식의 계시판은 물론 5×7 사이즈의 엽서 형식의 계시판, 16

절 사이즈 계시판 등 세 종류를 제작해 군부대에 보낼 예정이다. 해당 부대 지도 군법사는 부대 현실에 맞게 화장실에는 5×7 사이즈, 휴게실 등에는 포스터 또는 16절 사이즈 계시판을 붙여 장병들이 편하게 볼 수 있게 할 방침이다. 풍경소리는 그동안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인천 등의 지하철 역사 2000곳에 포교 계시판을 걸고 있고 군법당 50여곳에도 엽서를 보내왔다.

이용성 사무총장은 “장병들이 휴식을 취하거나 용변을 볼 때 부담없이 읽을 수 있는 포교 계시판을 군부대에 곳곳에 붙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두서 기자

조계종 군종특별교구와 현대불교신문 공동 캠페인

‘2006 군포교 합시다’ 찬불가 반주기 군법당에 보내기

우리의 불자 장병들이 활력 있고, 보람찬 병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후원합시다!!!
군대에서 불교를 처음 접하는 장병들이 “찬불가-하나로반주기”로 찬불가를 배워 신행생활의 기쁨과 성불의 연을 맺게 합시다.

언제 어디서나 “찬불가-하나로반주기”면 OK!
세련되고 깔끔한 디자인과 이동이 간편합니다.
법회의 설법용 영프로 사용이 가능하며,
군부대 위문 공연과 경로위안잔치 등 각종 사찰행사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포교도 “찬불가-하나로반주기”면 OK!
어린이도 찬불가 동요와 법회 의식곡 등을 쉽게 배울 수 있고 신도님들도 찬불가 가요를 송년회, 친목회, 지역법회 등의 다양한 포교활동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야외행사에서도 “찬불가-하나로반주기”면 OK!
간편한 이동과 고효율의 웅장한 사운드로 군법당이나 사찰의 야외 법회나 행사용으로 제격입니다.



■ 제품사양

- 출력 : 100W+100W . 소비전력 : 350W
- 입력전압 : AC 220V 전용 50/60Hz
- 사이즈 : 64.5(가로) x 67(세로) x 150(높이)Cm
※ 모니터포함
- 모니터 21인치(완전 평면) 마이크 2개(5m), 리모콘 포함
- 일반곡 23,000곡 이상 내장 ※ 찬불가 120여곡 내장

현대불교와 풍경소리가 함께하는 “찬불가-하나로반주기” 보급 캠페인에 참여합니다.
풍경소리에서 제작한 법회 의식곡 / 찬불가 가요 / 찬불가 동요 120여곡 추가 내장

찬불가 하나로반주기 구입 및 문의 02)737-0695 (직), 2004-8219 (현대불교 영업팀)